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미국 시장과 소비자들, 경제에 낙관적
- WSJ Real Time Economics: 주택 판매 또 줄어든다

[미국 금융]

- Bloomberg: 연준의 자본 규제 앞두고 은행 로비 20% 늘어
- The Economist: 달러 약세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뉴욕/뉴저지]

- The Guardian: 뉴욕시 지하철 요금 내달부터 2불 90센트
- Bloomberg: 뉴저지, 뉴욕시 교통 혼잡세 방안에 소송 제기

[에너지]

- CNN Business: 미국인들 폭염 문제 해결 방식에 불만

[중국 경제]

- WSJ: 미국, 중국 경제 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매업체들은 공급망 예측을 바꾼다
- Bloomberg: 칩 슬럼프 끝나 한국 원화 반등 가능성↑
- WSJ: 슈퍼마켓, 식료품 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 WSJ: 백악관 “Amazon, Google, Meta, MS가 AI 세이프 가드에 동의 했다”
- CNN Business: 아마존, 모든 홀푸드 매장에서 ‘손 흔들어’ 결제 추진
- WSJ: Walmart, Walmart+ 구독 가격 인하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Markets and consumers are in an upbeat mood. Here's why

미국 시장과 소비자들, 경제에 낙관적

- 작년과는 달리 주가와 소비자 심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는 7월에 13% 상승해서 두달 연속 진전되었다. 이 지수는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
- 동시에 올해 S&P 500지수는 올해들어 18% 상승했다.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대형 은행과 지방 은행의 2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 한마디로 올해들어 소비자 심리와 주식이 모두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다.

- 주식과 소비자 심리의 밀접한 상관 관계는 작년에 가능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Real Time Economics: 주택 판매 또 줄어든다

[주택 판매 또 줄어든다]

- 높은 모기지 금리와 매물 부족으로 인해 6월에 주택 판매량이 감소했다.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에 비해 3.3% 줄었다. 이자율이 높아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에는 현재 모기지 금리가 높아 쉽게 매각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 그 결과 주택 판매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구매 희망자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금융]

Bloomberg: Bank Lobbying Climbed Nearly 20% as New Fed Rules Loom 연준의 자본 규제 앞두고 은행 로비 20% 늘어

- 올해 2분기에 은행업계의 로비 활동이 크게 늘었다. 올해들어 금융 기관 4개가 문제가 되어 워싱턴의 추가 규제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의 새로운 자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로비 활동에 따른 것이다.
- 어제 공개된 연방의회 로비 내역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30개 대형은행과 주요 은행 기관의 로비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4% 늘었다.
-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이 기간동안에 1천9백10만불을 지출해 1년전의 1천6백만불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Bloomberg 기사

The Economist: The dollar's dip will not become a sustained decline 달러 약세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 달러가 작년 9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로 13% 하락했다. 지난 주에는 3% 하락하면서 매도세가 가속화 되었다. 이는 통화로서는 큰 폭의 하락이다.
- 이머징 시장의 달러 채권 발행이 작년에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발행 시장은 지난해 100억 불 미만의 달러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2021년의 300억 불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 인플레이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과 유로존에서 인플레이가 더디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가 낮은 일본에서도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2% 상승하여 미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이러한 국가의 중앙은행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표시 자산에서 수익률이 높은 통화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
- 두 번째 이유는 올해 미국 GDP가 1.3%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달러 강세가 보일 수 있다. 미국 경기 침체는 글로벌 금융 안전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 즉, 달러 강세가 다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 또한 금리 인상 부담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 미국 경제는 경쟁국보다 강하고, 미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선호도가 높다. 이 두 가지 강세 때문에 달러가 현저하게 약해지는 상황은 오기 어려울 것이다.

The Economist 기사

[뉴욕/뉴저지]

The Guardian: New York City's subway fare to increase to \$2.90 in August 뉴욕시 지하철 요금 내달부터 2불 90센트

- 뉴욕메트로교통공사(MTA)는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8월 중순까지 2달러 75센트에서 2달러 90센트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 팬데믹으로 탑승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8년만에 처음으로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The Guardian 기사

Bloomberg: New Jersey Sues Over Congestion Pricing Plan in New York City

뉴저지, 뉴욕시 교통 혼잡세 방안에 소송 제기

- 뉴욕시 미드타운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뉴저지 통근자에게 부당하다며 뉴저지 정부가 법적으로 반발했다.
-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 교통부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는 이를 승인했었다.
- 빠르면 내년 1분기 부터 맨해튼 60번가 남쪽으로 진입하는 이지 패스 운전자는 최대 23불을 지불해야 한다.
- FHWA는 환경 검토 결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최종 승인했었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CNN Business: We can't air-condition our way out of America's heat crisis****미국인들 폭염 문제 해결 방식에 불만**

- 작년에 시카고는 특정 신축 및 기존 주거용 건물에 실내 공용 공간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 토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로스앤젤레스는 모든 임대 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하지만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거주자들에게는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
- 도시는 주변 환경보다 더 따뜻한, 이른바 열섬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 때문에 시원하게 지낼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설계해야한다는 것이다.
- 즉, 도심지 나무, 숲, 온도 낮추기 위한 반사 표명이 있는 쿨 지붕 등을 조성하고 건축법의 개정해야 한다.

CNN Business 기사

[중국 경제]**WSJ: Untangling the U.S. From China's Economy Is Messy****미국, 중국 경제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베트남을 방문했다. 공급망을 중국에서 우호적인 국가로 옮기려는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 비중은 줄인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입 비중은 늘렸다.
-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 분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베트남이나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 중 상당수가 중국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 청정 기술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Retailers Are Trying to Fix Their Supply-Chain Forecasts****소매업체들은 공급망 예측을 바꾼다**

- 새로운 기술, 분석의 틀, 공급업체와의 데이터 공유로 인해 판매업체들은 재고를 처리할 때 재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하고 싶어한다. 상품의 흐름을 즉시 관리하고, 매출을 높이고 필요한 곳에 상품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 백화점 체인 Macy's와 신발 판매 업체 Dr. Martens는 적절할 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 백화점 Macy's는 새로운 기술로 예측 능력을 키워 지난해 레저 의류 보다는 작업복 소비자 수요가 늘어 경쟁사와는 달리 과잉 재고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
- Dr. Martens는 올해 새로운 수요와 공급 예측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고객 데이터 플랫폼만 아니라 새로운 주문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 현재 소매업체들은 공급업체들에게 재빨리 예상 수요를 더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간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 팬데믹 기간에 전자 상거래가 급속한 성장을 보였지만 복잡한 상황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이 이제 기본 수요 분석외에 상품이 소매점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팔릴지 예측할 뿐만 아니라 판매 예측이 어떻게 회사의 시행 전략에 들어맞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AI Mania to Boost Korean Won as Analysts Bet Chip Slump Will End

칩 슬럼프 끝나 한국 원화 반등 가능성↑

- 올해 하반기에 한국 원화가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공지능의 글로벌 붐 때문이다.
- 이는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늘려 무역 조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칩 사이클의 전환이 한국 원화 강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
- 글로벌 메모리 칩 산업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 감소로 인해 다운 사이클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생성 AI가 새로운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반등할 경우 한국 원화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며 연말까지 한국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외환 전략가 Christopher Wong이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Supermarkets Are Losing This Food Fight

슈퍼마켓, 식료품 부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 슈퍼마켓 업계는 1950년 소매 식품 판매의 35%를 차지했고, 1960년에는 70%로 증가했다. 또한 1950~70년 사이에 미국 인구 증가율은 약 15%로 매우 높아 식품 시장 규모도 성장했다.
- 하지만 2020년까지 인구 증가율은 7.4%로 둔화 되었다. 또한 코스트코나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아마존,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까지 식료품 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 슈퍼마켓과 소규모 식료품점은 1997년 미국인 총 식료품 지출의 약 37%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그 비중은 25%로 크게 감소했다.
- 반면 코스트코와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비중은 1997년 4%에서 현재 10%로, 레스토랑과 패스트 푸드 점은 1997년 33.6%에서 현재 37.4%로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WSJ: White House Says Amazon, Google, Meta, Microsoft Agree to AI Safeguards

백악관 “Amazon, Google, Meta, MS가 AI 세이프 가드에 동의”

-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의 틀린 정보 및 기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즉, 이 같은 시행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사용자가 AI 생성 콘텐츠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 마킹(Watermarking)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아마존, 구글, 메타, MS, Open AI 등 주요 7개 AI 기업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 이 합의 내용에는 기업이 공개 출시 전 AI 시스템 보안과 기능을 테스트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 연구에 대해 투자하며, 시스템 취약성에 대해 외부 감사 시행의 자발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Amazon will let you pay with a wave of your hand at all Whole Foods stores

아마존, 모든 홀푸드 매장에서 ‘손 흔들어’ 결제 추진

- 아마존은 모든 홀푸드 매장에서 고객이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연말까지 500개 이상의 모든 홀푸드 매장에 Amazon One 손바닥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아마존이 목요일에 밝혔다.
- Amazon One을 사용하는 고객은 더 이상 지갑이나 휴대폰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다. 손바닥을 Amazon One 장치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된다.

- 이 기술은 2020년에 나왔지만, 현재 200개 이상의 홀푸드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CNN Business 기사

WSJ: Walmart Cuts Price of Walmart+ Subscription for SNAP and Social Security Recipients

Walmart, Walmart+ 구독 가격 인하하다

- 월마트가 SNAP와 사회 보장 수급자에게 월마트+ 구독을 반값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멤버십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기 위함이다.
- 자격을 갖춘 고객은 연간 49불에 월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구독료는 98불이다. 멤버십 혜택에는 무료 배송, Paramount+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포함된다.
- 월마트는 이번 조치로 식료품 정부 지원을 받는 미국인 4천 1백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잘나가던 뉴욕증시에 '빅테크 찬물'...다우는 6년만에 최장기↑

넷플릭스 8.4%↓·테슬라 9.7%↓...TSMC 충격에 반도체주도 부진

잘 나가던 미국 뉴욕증시에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 상승장을 주도하던 빅테크들의 '실적 충격'이 현실화한 탓이다.

초대형 블루칩들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거의 6년 만의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기술주들의 급락세에 빛이 바랬다.

20일(현지시간)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63.97포인트(0.47%) 오른 35,225.18에 거래를 마쳤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

